

국별 리포트

방글라데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12. 29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 의견	13

I. 일반개황

국명	방글라데시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수도	다카(Dhaka)
면적	148천 km ² (한반도의 2/3)	GDP	2,601억 달러 (2017 ^e)
인구	1.63억 명 (2017 ^e)	1인당 GDP	1,594 달러 (2017 ^e)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Taka(Tk)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달러당)	80.3 (2017 ^e)



- 방글라데시는 동쪽으로 미얀마, 서쪽으로 인도, 남쪽으로 벵갈만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세계 제8위의 인구대국(1.63억명, 2017년)임.
-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이슬람교를 믿는 동벵갈 지역(현 방글라데시)은 파키스탄으로 독립함. 1971년 차별 정책에 반발한 아와미 연맹이 동 파키스탄의 분리주의를 주장하면서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정하고 서파키스탄(현 파키스탄)에서 탈퇴함.
-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의류산업 외에는 뚜렷한 제조업 기반이 없고 외자 및 원조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빠른 경제성장과 빈곤퇴치프로그램의 시행으로 2014년에 세계은행 기준 저소득국가에서 저중소득국가로 올라서게 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6.0	6.3	6.8	7.2	7.1	7.0
소비자물가상승률	7.5	7.0	6.2	5.7	5.7	5.8
재정수지 / GDP	-3.4	-3.1	-3.9	-3.4	-4.5	-5.0

주: 방글라데시 회계연도는 7.1~6.30임.

자료: IMF

□ 민간소비 및 인프라 투자 증대로 2017년 7.1% 경제성장 전망

- 의류부문의 수출 호조,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소득,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7%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6년 성장률은 정정불안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액 및 농업 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2006년 이후 최고치인 7.2%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도 정부의 인프라 부문 지출 확대에 따른 투자 증대와 민간소비에 힘입어 7.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7%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소비 증대와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 전망임.

* IMF 경제성장률 전망치(%) : 7.0('18^f~20^f)

- 의류수출은 최대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으로 증가하고, 해외근로자 송금 또한 유가회복에 힘입은 중동지역 경기활성화로 견조한 흐름을 보일 전망임.

□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7년 -4.5%로 확대될 전망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 -3.4%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7년에는 -4.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정부지출은 인프라 투자, 전력보조금 지급 등으로 늘어난 반면 정부 수입은 홍수로 인한 식량부족을 우려해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조치 등으로 소폭 증가한 것에 기인함.

* '17년 두 차례(6.20, 8.17)에 걸쳐 25% → 10% → 5%로 인하함.

- 정부부채 이자가 정부수입의 20.8%(2017년)에 달하는 점도 정부재정 여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과 동일한 5.7% 기록 예상

- o 2016년 7월에 발생한 홍수로 농작물 및 식품 공급량이 제한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회복하면서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7%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홍수로 인한 식품수급 변동성이 확대되고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물가 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7년 두 차례(2월, 6월)에 걸쳐 가스 가격을 20% 이상씩 인상하였고, 2018년 중반부터 LNG 해외수입을 계획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 국제 경제

<표 2>

주요 국제경제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 상 수 지	2,059	756	2,580	1,275	-2,989	-3,654
경상수지/GDP	1.2	1.2	1.6	0.6	-0.7	-1.3
상 품 수 지	-6,362	-7,482	-6,120	-6,217	-9,161	-9,884
수 출	28,638	29,925	31,736	34,062	34,743	36,654
수 입	35,001	37,406	37,856	40,279	43,904	46,539
외 환 보 유 액	17,654	21,785	27,023	31,776	33,123	33,891
총 외 채 잔 액	33,995	35,663	38,689	41,126	46,552	53,053
총외채잔액/GDP	20.8	19.4	18.6	17.5	17.9	18.5
D. S. R.	6.0	6.0	4.7	4.7	5.6	6.2

자료: IMF, EIU, OECD.

가. 대외거래

□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 전환

-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최근 5년간 $\pm 1\%$ 내외로 큰 변동은 없으나, 2017년은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로 -0.7% 의 적자전환이 예상됨.
 - 의류 등 저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하고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등을 수입하는 교역구조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이나,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7년에는 상품수출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수입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는데 경제발전예 따른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중간재 수입이 함께 늘어났기 때문임.
 -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져 향후 경상수지 적자폭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IMF 경상수지/GDP 전망치(%) : $-1.3('18)$ $\rightarrow -1.8('19)$ $\rightarrow -2.1('20)$

□ 외환보유액은 견조한 증가세 유지

- 의류수출과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빠른 성장세로 외환보유액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여 2017년 말 331억 달러로 전망되며, 월평균 수입액 대비 7.2배 수준까지 상승함.
- 이러한 외환보유액의 증가세는 대외충격에 대비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음.

나. 외채상환능력

□ 지속적인 외채관리로 외채상환능력 양호

- 정부가 외국인 증권투자 및 민간부문의 해외차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외채 규모 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외채상환능력 지표도 양호한 수준임.
 - GDP에서 총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 이후 17%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또한 2016년 4.7%, 2017년 5.6%로 낮은 수준임.
- 총 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16.8%로 낮은 편으로, 중장기 외채비중이 높아 외채구조도 양호한 편임.
 - * 단기외채/총외채(%) : $11.0('13)$ $\rightarrow 11.6('14)$ $\rightarrow 17.1('15)$ $\rightarrow 19.1('16)$ $\rightarrow 16.8('17^e)$

- 다자·양자 기구의 증장기 양허성 차관이 총 외채의 80%, 정부부채의 46%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적인 상환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낮음.

3.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취약한 세수기반, 낮은 국민소득으로 정부 정책 수단이 제한적

- o 1인당 국민소득이 1,594달러(2017년)에 불과해 세금부담 능력이 매우 낮고, 등록납세자 수가 2백만 명에 불과해(전체인구 1.6억명 중 1.2%) 구조적으로 세수기반 확대가 어려움.
 -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3%(2017년)에 불과해 전세계 최하위 수준임.
 - 정부는 세수기반 확보를 위해 2012년에 복잡한 부가가치세율을 15%로 단일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5년 뒤인 2017년 발효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2019년 1월 총선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다시 일정을 미룸.
 - o 취약한 세수기반으로 인해 정부가 대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재정, 통화 정책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경제발전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원조와 외국인투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음.
 - 국가재정의 약 20%를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년 10~20억 달러의 수준의 원조*를 받고 있음.
- * 2015년 수원규모는 25.7억 달러 규모로 OECD 회원국 및 기구의 지원은 World Bank, 일본, ADB, 영국 등 순이며(한국은 10위), OECD 국가 외 중국, 인도 등도 방글라데시에 대규모 원조를 지원 중임.

□ 열악한 투자환경이 경제성장의 걸림돌

- o 고질적인 전력부족과 인프라 부재 등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기업경영 여건은 조사대상국 190개 국 중 177위로, 서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최하위권에 해당함.

<표 3> 서남아시아 주요국 기업경영여건(2018) 비교

분야 \ 순위(/190)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종합순위	100	111	147	177
창업	156	77	142	131
건축인허가	181	76	141	130
전력수급	29	93	167	185
재산등록	154	157	170	185
신용획득	29	122	105	159
투자자보호	4	43	20	76
조세납부	119	158	172	152
대외무역	146	86	171	173
계약실행	164	165	156	189
사업폐쇄	103	88	82	152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8

□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

- 국경의 80%가 저지대로 홍수, 가뭄, 조수 피해 등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로, 기후변화 피해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2017년 8월 대홍수로 인해 전체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173명의 사망자, 690만 명 이재민이 발생함.
 - 해수면 1도 상승 시 이재민이 3천만 명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금도 매년 강주변 침식으로 인해 1백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음.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14년 보고서에 방글라데시를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로 평가했으며, Global Climate Risk 2017 보고서 또한 지난 20년간(1996~2015) 재난 피해국가 상위 10개국** 중 6위로 방글라데시를 선정함.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UN의 전문기관인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 의해 '88년 설립된 조직으로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

** 온두라스, 미얀마, 아이티, 니카라과,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과테말라, 태국(높은 순)

나. 성장 잠재력

□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보유

- 총 인구는 2017년 기준 1.63억 명(세계 8위)이며, 전체 인구의 61.3%가 경제활동인구(15~59세)로 노동력이 풍부함.
 - 2017년 UN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2046년 방글라데시 인구는 2억 명으로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가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방글라데시의 월 최저임금은 69달러로 중국의 1/4, 인도의 1/2 수준에 불과해 의류와 같은 저임금 제조업에 경쟁력을 보유함.
 - 의류수출은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84.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 인도와 중국 사이의 전략적 위치로 국제무역 허브로 성장 가능

- 남동부에 위치한 제2의 경제도시 치타공은 작게는 인도와 중국, 넓게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제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음.
 - 치타공 항구는 남아시아에서 인도 뭄바이, 스리랑카 콜롬보에 이어 3번째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의 요충 항구 중 하나로 향후 많은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 *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아프리카의 에너지와 화물 수송로에 위치한 주요 항구의 운영권 확보와 시설개선 등의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그림 1>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 주요 거점 항구



자료: 연합뉴스, “中, 스리랑카 함반토다 항 운영권 확보”, 2017.7.30자

다. 정책성과

□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해외투자 적극 유치

- World Bank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2016~2020년간 4,1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현재 GDP(2017년 2,601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임.
- 방글라데시 정부는 인도, 중국,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인프라 사업을 유치하고 있음.
 - 각국 정부는 자국기업 사업 수주,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함.

<표 4> 중국, 인도, 일본의 주요 인프라 투자 사업

국가	분야	사업명	사업규모 (억 달러)	참여기관(기업)
중국	철도	Dhaka-Jessore Railway	31	China Railway Group
	교량	Padma Multipurpose Bridge	36	China Major Bridge Engineering Company
	발전소	Payra Coal-Fired Power Plant	16	China National Machinery Import and Export Group.
	송유관	Chittagong Oil Pipeline	0.7	China Petroleum Pipeline Bureau
인도	발전소	Maitree Super Thermal Power Project	15	Bharat Heavy Electricals Limited
	철도	Khulna-Mongla Railway	0.5	인도정부 금융지원
	항구	Payra Deep Sea Port	-	인도정부와 협의 중
일본	도시철도	Dhaka Mass Rapid Transit	28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항구	Matarbari Deep Sea Port	46	
	발전소	Matarbari Coal-Fired Plant	16.6	

자료: BMI(Industry Trend Analysis), 언론자료 등 종합

Ⅲ. 정치 · 사회 동향

1. 정치 안정

□ 현 여당이 2019년 총선도 승리할 전망이나 정치 불안 요소 상존

- 2009년부터 정권을 잡고 있는 아와미 연맹(Awami League, AL)이 2014년 1월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2019년 1월 총선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아와미 연맹을 이끄는 현 하시나 총리의 권력이 유지될 전망이나 2019년 초 총선을 앞두고 2018년 하반기부터 국내정세가 다소 불안해질 것으로 보임.
- 2014년 총선 시 야당인 방글라데시 국민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BNP)이 중심이 된 대규모 시위와 경찰의 무력진압으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총선 전에도 양당 간의 갈등*이 사회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음.
 - * 방글라데시는 40여 개의 정당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와미 연맹(AL)과 방글라데시 국민당(BNP) 두 정당이 번갈아 가면서 국가를 이끌고 있는 양당체제라고 볼 수 있음.

2. 사회 안정 (소요/사태)

□ 2019년 총선을 앞둔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 확산 우려

-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시위나 파업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2013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 주요 수출산업인 의류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2012~13년 의류공장 화재·붕괴 사고로 희생자가 속출하자 노동자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근로환경 개선과 최저임금 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 이에 정부는 2013년 7월 노동법을 개정하여 사망위로금·퇴직금 지급과 보험의무 가입을 의무화하고, 같은 해 12월 의류노동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38달러에서 69달러로 77% 인상함.

□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테러 위협 심화

- 방글라데시는 인구의 약 90%가 이슬람교 신자이며, 이 중 대다수가 수니파로 구성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이슬람교의 영향력이 크지만, 소수인 시아파에 대한 차별이 없고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은 미미한 편이었음.

- 그러나 2016년과 2017년에 연이어 외국인, 경찰 대상 테러가 발생하였고, 정부의 대테러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16년 7월 안전지역으로 여겨지던 대사관 밀집지구의 고급식당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외국인 18명을 포함한 22명을 피살한 사건이 발생함.
 - 2017년 3월에는 경찰 대테러 조직을 대상으로 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하여 2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음.
- 이와 같은 사회불안은 외국인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는 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임.

3. 국제관계

□ 인도와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 유지

- 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과 인도의 방글라데시에 대한 경제지원이 지속되고 있음.
 - 인도는 방글라데시의 제2위 수입국(총 수입액의 15.0%)으로 면, 면사, 곡물, 차량 등을 수입하고 있음.
 - 2017년 4월 하시나 총리는 인도를 방문하여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50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았고, 후속조치로 인도 재무부 장관이 10월에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45억 달러의 양허성 크레딧 라인을 승인함.

□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 강화

-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제1위 수입국(총 수입액의 24.1%)이자 주요 군수품 공급원으로 방글라데시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 공여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2016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수송,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136억 달러 규모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이래, AIIB(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사업과 일대일로 관련 사업을 통한 방글라데시 앞 투자가 늘고 있음.
 - 2017년 8월에는 중국 북경에서 중국-방글라데시 투자 포럼을 최초로 개최하고 양국의 민관 협력채널을 강화함.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73. 12. 18 수교 (북한과는 1973. 12. 16 수교)
- 주요 협정: 무역경제협력협정('73), 문화협정('79), 이중과세방지협약('83), 투자
증진보호협정('88), 경제기술협력협정('95), 과학기술협력협정('95),
무상원조협정('14)
- 해외직접투자현황: 2017년 9월말 누적 기준 315백만 달러(270건)
- 교역규모

<표 6> 한 · 방글라데시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10	주요 품목
수 출	1,236	1,209	1,158	1,023	철강판, 합성수지, 종이제품
수 입	345	335	293	245	의류, 가죽, 신변잡화
교역규모	1,581	1,544	1,452	1,269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방글라데시는 민간소비와 인프라 투자 증가로 2017년 7.1% 성장하고,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취약한 정부수입에 비해 인프라 투자 등 정부 지출이 늘면서 -4.5%로 확대되며,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로 -0.7%의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외채구조는 중장기 양허성 차관 위주로 양호하며, 건실한 외채상환지표와 외환보유액 수준 또한 외채상환능력을 뒷받침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인도, 중국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나 대내적으로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사회불안이 심화되고, 2019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풍부한 저임노동력과 경제활동인구, 국제물류허브로의 성장 등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투자환경과 기후변화 피해가 걸림돌로 작용함. 또한 정부재정의 약 20%를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프라 수요에 비해 재원이 매우 부족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음.
- 2018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7%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소비 증대와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조사역 김은경 (☎02-6255-5725)
E-mail: lenakim@koreaexim.go.kr